

PA-81

맥류후작 벼 규산 및 황산고토 시용에 따른 수량 및 품질 영향

안규남^{1*}, 민현경¹, 신서호¹, 김동관¹, 권오도¹

¹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

[서론]

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벼 이삭의 안전출수한계기가 늦기 때문에 벼 재배 가능기간이 길어 맥류후작 등 이모작 재배 비중이 23%로 높은 편이다. 그러나 이모작은 일모작에 비해 벼 생육기간이 짧고 전작물인 보릿짚 등이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재배되기 때문에 수량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2017년부터 2년동안 맥류후작 벼 조생종 조명1호와 중만생종 수광을 대상으로 수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규산 및 황산고토 시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. 시용시기는 보리 수확 직전인 벼 재배 2주전에 황산고토 50kg/10a, 규산은 100, 200kg/10a 수준으로 살포하였고 보릿짚은 수확후 환원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쌀 수량은 수광벼에서 황산고토 처리시 무처리 대비 6% 증수하였고 규산 처리구는 무처리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. 단백질함량은 조명1호 5.5~6.3%, 수광 5.4~5.9% 범위로 규산 처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고, 완전미율은 조명1호 85.8~89.7%, 수광은 94.7~96.6% 범위로 규산 처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. 이상의 결과로부터 규산은 품질 향상, 황산고토는 수량성 증진에 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 특히 황산고토 처리시 2년차에 수량이 무처리 대비 5~11% 증가되었으나 단백질함량이 증가하고 완전미율도 낮아지는 등 쌀 품질이 저하되므로 지속적인 연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*주저자: Tel. 061-330-2524, E-mail. ankyunam@korea.kr